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음을 믿고 행해야!

25면에서 계속

욕심내는 만큼 행복해지지만...

스님, 욕심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게 욕심이 되는 것이지 욕심이 아니라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더 욕심을 내게 되니까 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욕심 내지 않는다면 욕심내는 게 없으니까 행복해지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욕심내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탄 모습으로 가면 시궁창도 돼지 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짙으면 뱀뱀단도 금으로 보일 수밖에요. 뱀뱀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석을 해 놓은 건 줄 알아요.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집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고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요.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논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못된다면 오다움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헛바퀴 돌든 또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 몇 바퀴나 돌아왔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 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그 고기 한 점을 보고서 고기로 보았습니다. 한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四生)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생의 그릇 즉, 소 한 마리로 보았다고 소입니다. 소 한 마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면 사생으로 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각 하나에 고기 한 점이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딱 보는 순간에 소로 몇 바퀴나 돌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로만 몇 바퀴 돌 게 아닙니다. 짐승으로 얼마나 돌았으며, 얼마나 쫓고 쫓기고 먹혀 왔으며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걸 한눈에, 한 찰나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입에다, 보는 순간 벌써 자기는 요리를 해치워 버렸습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딱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치워 버렸으나 자기가 뱀뱀단입니다.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소 한 마리를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았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보니까 자기가 돼 버린 거죠. 자기가 뱀뱀단 두드러지지 않고 싶죠? 자기가 또 거기서 소 한 마리를 꺼내니깐, 소를 꺼내도 소가 아

니라 이제는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낳았는데 사람으로 생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꺼내어도 소의 사생이 들어있는 그릇이나 사람의 그릇이나 똑같이 그 사생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드물죠.

내가 각각 나라의 승승! 한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각각 나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숫자를 많이 낳죠? 알도 많이 낳

리락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 중생들이 다 받쳐 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가 눈코가 의젓하게 달리고, 손발이 있어서 평발을 해 가지던 턱 달고 다니는 건데, 그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달고 다니게 해 드리는데 상구보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화중생은 모르고요?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벌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

아이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려면...

초파일이 되어서 그런지 젊은 법우들이 젊에 나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보살은 자주 나와서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해 나가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끌어 줘야 좋은 공부를 배우게 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우리가 바쁜게 일을 해도 그것도 행선이 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행선이다. 그것이 참선이 아닌 게 아니다. 행선이다. 서 있으면 입선이다, 누워 있으면 와선이다, 앉아 있으면

없이 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 뒤에 흠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악성이라고 수술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걱정 걱정을 하는데 그게 몇 개 흘렀죠. 올해 인제 중학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지 혹 하나 못 없애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형이 인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깐 형더러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자 진짜 나라면 왜 못하겠어? 하여튼 형은 아직도 멀었어." 그러더니 불과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버지의 흠이 반으로 줄었다던 얘기도. 그런데 중학생이 또 학교에 갔다 와서는 착 깔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걱정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또 한 번 발이 되니까 그냥 씩 웃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애지고 나니까 개가 형더러 하는 말이 "뭘 못하겠어? 형은 아직도 멀었어. 취직 못하는 것도 아직 멀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된 아이들은 진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특사발이 될 일이 생겨도 끄떡없이 하늘을 받치고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봐주고도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저 뭐 돈이 들으니 못해,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 글썽,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풀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그저 이거를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갑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테 연방 해 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관하는 내용을 밥 먹는 테이블에도,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걸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아니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쬐어야! ”

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이런 거는 벌써 내 마음속에 흐르는 피의 그 생명들이 내가 나라고 하고 싸우면서 서로 나오거든요. 서로 나와! 양보심이 없어요! 양보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올 수밖에, 다섯도 좋고 넷도 좋고 열도 좋아요.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양보성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리다' 하는 양보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다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고등생명이다 이거죠. 고등동물이다 이겁니다. 생명이 다 마찬가지로, 차원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억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얹히고설켜서 그 냥 몰락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 더 지지하게 짊어지고 다니는 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원통하니까? 이 몸뚱이가 공(空)해서 한 찰나에 살다가 한 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몸뚱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욕심 때문에, 나라는 욕심이 없다면 싱겁게 살 수 있을 텐데, 한 찰나찰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지혜의 샘물은 골목골목에서 솟아 흐르듯이 좋은데 말입니다. 그 샘물이 싱싱하고 좋는데 그걸 모르시고선 자꾸 몸 하나에 깎달리니 전체에 깎달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여러번 몸속에 수만 생명들이 들어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피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살 속에도 오르락내

을 하는 동시에, 기벌 데가 있으면 좀 떨고 기벌 데가 없으면 아주 역력히 자기 살 공리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 홀홀단신으로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점을 감안해서 귀도 떠야 하고 눈도 밝아야 하고 폭도 넓혀야 하니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리 위에도 세계가 있고, 우리 발밑에도 세계가 있고, 사방팔방에 세계가 있습니다. 전체 '대천(大千)' 하면 벌써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대천' 하면 그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요만한 한 지구의 우물에서 '우리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땐 참으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물에서만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을 계속 하는 그런 정신계의 문제와 육신계의 물질세계와 이 모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전쟁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저 줘도 살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돈을 갖다 주고 하라고 그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겉면에 탐착을 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과한 욕심이죠. 진짜 욕심을 부리려면 우주세계 전체만발을 다 집어먹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겠죠. 영원치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우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등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않게 생을 버리다니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좌선이다. 이러니 모두들, 동서남북을 다 한테 합쳐도 그냥 참선입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어도, 물 흘러 내려가는 걸 보고 있어도 참선이에요. 앉아서 하질 않고 쉼이니까 입선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에에게 뭐라고 뭐를 주는 것도 참선이에요. 공사이면서 참선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공부를 지금 못하시면 어느 때 하시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려운 겁니다. 또 육체가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해야죠.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건,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은 남편이 나오게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라져야 남편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정한 이치죠. 자식들도 그렇고요. 또 자식들에게 관하는 도리부터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어디다가, 공중에서 갖다 세워 놔도 살아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걸로 아니 이걸 어떡하면 좋죠?

세 살 먹은 아이가요, '주인공, 낮게 해 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서 그냥 일어 나지도 못하고 콧물을 줄줄 흘리는 고 세 살배기가 '주인공, 낮게 해, 주인공, 낮게 해.' 그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가 그냥 부신 듯 부신 듯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자라서 다섯 살이 됐어요. 지금 다섯 살이 됐는데, 엄마가 '아이구, 아파서 죽겠다. 감기가 들어서 죽겠다.' 이러면 '흠, 엄마는 아직 멀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애들 중에도 감쪽감쪽 놀랄 정도로 그런 애들이 드문드문 있던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야 아주 여기에 박혀서 이다음에 자라도 그냥 거침

대한불교 무량종 입종 안내

불교 정법을 수행정진 하면서 본 종단종지종풍을 지키고 뜻을 같이할 참신한 승려나 법사 행자 입종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제반서류 충무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1통
- 호적 초본 1통
- 승려 증명서류 (종정단 재적등본 또는 승려증, 사찰등록증, 사본)
- 이력서 1통
- 여권용사진 4매
- 사찰전경사진 (내 외)

대한불교 무량종 충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주소: 경남 하동군 지리산면 서리 550번지
☎ 055)883-7771, 7790, 7714 / 팩스 883-779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였습니다.

- 大추,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 결혼연구원

전통범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 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고급과정(4개월)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 지장성, 시왕도성, 상응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전시식
◆ 특강(5개월)
천수바라, 사다리니, 화의재바라, 오공향, 유원승, 오잠작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 예수재등

2. 수업 : 5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 (경우에 따라 요일을 변경 할 수 있다.)

3. 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강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중무원 설립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중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번지

8. 연락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교육원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 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려온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형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교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듯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송보송 100%보장!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www.법왕정사.kr